

# 이제마의 의철학적 사단론 연구\*

김두영\*\*

**주제분류** 동양철학 한국철학

**주요어** 이제마, 격치고, 사단론, 의철학, 인의예지, 비박탐나인, 사상인

## 요약문

본 논문은 이제마의 사단론이 유학의 사단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사단론이 인간의 모습인 사상인으로 구현된 독창적 이론임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제마의 사단론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이제마가 사상이라 언급한 사심신물(事心身物)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유가의 인의예지에 근거를 둔 사상인에 논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 「사단론」에서 사단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이제마는 사단론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유가철학의 인의예지를 근거로 비박탐나인(脾薄貪懦人)과 사상인(四象人)을 설명하여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논자는 이와 관련된 일련의 전개과정을 논하고자 한다. 또한 유가의 인의예지와 이제마의 인간론인 사상인에 대하여 상호 연관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실증하기 위하여 유가의 고전과 이제마가 저술한 철학서인 『격치고』와 의학서인 『동의수세보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제마는 자신의 철학사상을 설명한 『격치고』에서 유가의 인의예지에 학문적 근거를 두고 비박탐나인을 논하고 있다. 또한 의학서인 『동의수세보원』에서는 인간의 사장(四臟)인 폐비간신(肺脾肝腎)과 인의예지의 관계 속에서 사상인을 구체화하였다. 이제마는 유가의 사변적 사유체계인 사단을 의학이라는 실용적 방법을 통하여 인간의 유형인 사상인으로 구분하는 독창적 인간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本 論文은 2017年度 (社)江原韓國學研究院의 支援을 받아 修行한 研究임."

\*\* (사)강원한국학연구원

\*\*\* 각주 5번 참조.

이제마는 인간중심의 윤리와 선진유학의 경학적 기초위에서 의학 및 심리학을 인체의 몸과 융합하여 인간 유형의 성정을 분석하였다. 그는 이러한 배경에 우주원리와 사물의 현상에 대한 관찰과 통찰력이 보통인과는 다른 안목이 있었기에 매우 독특한 학문 체계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 1. 문제제언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 1837-1900)는 조선시대 말 1890년대 활동하였던 유학자이다. 그는 정신과 마음을 하나의 통일적 유기체로 보고 사상적 인간관을 독자적 관점에서 주장하였다. 본래 유학은 인간의 본연지성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면 누구나 타고난 천부의 선한 본성을 옹호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유학의 목표와 이상이다. 본 논문은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BK21+ 철학치료 상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업단의 정기적인 콜로키엄 및 세미나와 자료 등을 통해서 일관된 의철학(醫哲學)의 임상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sup>1)</sup> 이제마는 그의 저서인 『격치고』<sup>2)</sup>에서 마음의 본체를 유가의 인의예지를 근원으로 하고, 인간을 마음의 성정에 따라서 가선가악(可善可惡)한 것으로 본다. 사덕인 인의예지의 성이 사단지심의 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사단으로 표현하고 있다. 『동의수세보원』의 「사단론」에서는 성정과 장리(臟理)의 인간론인 사상인에 관하여 자신의 철학사상을 밝히고 있다.<sup>3)</sup> 유학은 맹자의 사단론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본성으로 여긴다. 그렇지만 이제마는 맹자의 유학적 사단을 인간의 본성으로 여기면서

- 
- 1) 실천철학적 성격이 강한 본 논문을 논평하고 조언을 해 준 분들께 감사드린다.
  - 2) 황인선, 「李濟馬의 知行論 研究-『格致藁』를 中心으로」, 『哲學論叢』 第63集, 새한철학회, 2011, 163-184쪽. 參照. “『格致藁』는 李濟馬의 人間理解에 對한 總論으로 人間の 心性과 行爲를 格物致知하여 私慾을 調節統制하고 道德을 完成하는 方法에 對한 提示하였다. 『격치고』에서 규명한 知人·正己의 내용을 근거로 『동의수세보원』에서는 인간의 몸과 마음이 私慾에 의해 과·불급상태에 빠짐으로써 발생하는 신체의 작용과 그 결과로서의 질병 및 치료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3) 이병채, 「東武 李濟馬 四象醫學의 哲學的 意義」, 『韓國宗敎』 제33집,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2009, 157-178쪽. 參照. 本論文은 先行研究의 書誌學的인 哲學論文으로 수월성이 있으며, 『格致藁』의 構成, 『儒略』에서의 哲學, 『反誠箴』의 哲學, 『獨行篇』의 哲學으로 서술되었다.

이를 통해 인간의 또 다른 이면적 모습을 재구성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공맹의 인의예지에 관한 이제마의 사단적 의미와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한 사상적 인간관에 주목하고자 한다.

유학 사상의 근본인 인의예지는 이제마의 철학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로 좀 더 자세히 분석하여 고찰하겠다. 이제마는 기본적으로 인의예지를 맹자의 사단사상에 근거를 두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고에서는 이제마가 유가의 인의예지를 다양한 비유로 표현하여 이를 인간에 접목하여 심육에 따른 비박탐나인(鄙薄貪懦人)과 인간의 성정과 장리의 유형을 논한 사상인을 이해하고자 한다.<sup>4)</sup>

이제마는 사단의 정의를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동의수세보원』의 「사단론」에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는 “사단에 대한 동무의 이해 방식은 종래와 어떻게 다른가. 동무의 사단 이해 방식은 먼저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존재구조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단론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萬物은 身이 사는 곳이고, 身은 心이 사는 곳이고, 心은 事가 사는 곳이다.”<sup>5)</sup>와 같이 事心身物을 사단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제마는 『격치고』 「유략」에서 사심신물(事四端), 심사단(心四端), 신사단(身四端), 물사단(物四端)처럼 사단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논자는 이것이 맹자의 사단 의미와 전혀 관계없이 단순히 사, 심, 신, 물의 현상과 작용에 대한 사단 즉 4가지 시작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이제마의 사단론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이제마가 사상이라 언급한 사심신물(事心身物)에 초점을 맞추

4) 裴英淳, 「李濟馬의 四端論과 그 經世論的 再構成」, 『民族文化論叢』 제44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 275-297쪽. 參照. “이제마는, 天機, 世途, 人身, 地址는 天下를 構成하는 4軸인데 天機(=天時)에 소통할 수 있는 덕성이 智이며, 世途에 소통할 수 있는 덕성이 禮이며, 人身에 소통할 수 있는 德성이 義이며 地址(=地利)에 소통할 수 있는 덕성을 仁으로 規定하고 있다.”

5) 최대우, 「이제마의 사단론」, 『범한철학』 제43집, 2006, 8쪽.

어 전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마의 사단론이 유가의 인의예지를 독자적 관점에서 인간의 모습인 ‘비박탐나인’과 ‘사상인’으로 연계하고 있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배영순은, “동무는 천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도 사단에서 나오는 것이며 천기에 합당한 인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사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제마의 「사단론」은 곧 인간론의 준거인 셈이다.”<sup>6)</sup> 이와 같이 이제마가 의미하는 「사단론」은 인간의 유형으로 드러난 인간론이라 할 수 있다. 이제마는 유학의 사단 사상을 연구하여 자신이 관찰하여 탐구한 인간의 모습과 연계함으로써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아우르는 독창적 사단 사상을 창조하였다. 즉 이제마는 유학의 사단을 ‘비박탐나인’과 ‘사상인’에게 대입하여 인간 모습의 사단을 나타내고 있다. 즉 마음은 육신과 불가불리의 존재로서 일신을 주재하고 있는 바 생명활동의 근본으로 본다. 이제마의 마음은 형이상학적 무형이 형이하학적 물질인 폐비간신(肺脾肝腎)를 통하여 그 실체를 드러내서 인간의 양태로 나타난다. 이는 유학의 사단이 인간을 형이상학적 본성의 관점에서 이해하였다면 이제마는 유학의 사단을 인간의 형이하학적 기의 현상에 바탕을 두고 심신의 기능을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마의 인간 성정과 심신을 통한 인간관 분석은 본질적으로 심리학적 의미를 내포한 오늘날의 분석심리학과 매우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제마의 사상의학적 인간관인 4가지 유형의 행태는 희노애락의 성정이 인간에게 치우쳐 나타남으로서 개개인의 정신 내면세계에서 외부의 형태로 그 편벽함이 드러난다. 때문에 인간은 유학의 이상인 수기치인을 통하여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돌아보고 책망하며 지체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한 인과관계는 결국 나 자신에게서 찾아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이제마는 인간을 크게 4가지 유형

6) 裴英淳, 「李濟馬의 人間論-衆人의 유형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50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 335쪽.

의 성정인 태양인·태음인·소양인·소음인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 유형의 개인적 희노애락의 편차는 중용적 방법을 통하여 성정을 조절함으로써 정신적 건강을 이루고 육체적 건강을 이루고자 한다. 이것은 유학 사상인 인의예지의 본성을 바탕으로 하고, 중용의 방법을 통하여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여 건강한 삶을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인의예지의 사단지심을 통하여 이제마의 醫 철학적 인간유형을 탐구하고, 사상이 희노애락의 성정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장리의 강한 기능과 미약한 기능의 작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고자 한다.<sup>7)</sup>

## 2. 이제마의 사단론

### 1) 『격치고』의 유학적 사단론

#### (1) 인(仁)

이제마의 思想은 공맹의 유학에서 출발한다. 유학적 세계관은 인간을 자연의 천리를 따르는 존재로 보았다. 이제마는 인간의 근본을 천리에 내재한 법칙으로 보고 있다. 이제마는 “공자는 인의예지를 실현했던 가장 뛰어난 성인이다.”<sup>8)</sup>라고 하였고, “인의예지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보배라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의예지는 유학의 이상적 인격체인 성인의 본성이라 하고 실존적 인간이 천도와 소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또한 사덕을 구체적인 작용의 입장에서 논급하고 있다.”<sup>9)</sup> 이제마가 인의

7) 裴英淳, 「李濟馬의 인간론-衆人의 유형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50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 323-357쪽. 參照. “東武 李濟馬의 『格致藁』는 「儒略」, 「反誠箴」, 「獨行篇」 3편이다. 그 중 「獨行篇」은 李濟馬의 인간론으로, 그는 여기에서 衆人을 鄙人, 薄人, 貧人, 懦人의 4가지 유형으로 설정하고 거의 전권에 걸쳐서 이를 상론한다.”

8) 李濟馬, 『格致藁』, 「儒略」. “孔子, 仁義禮智上聖也.”

예지의 사단지심을 논함에 있어서 공자를 인의예지의 모범적 성인으로 받들며 공맹의 유학사상을 인용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제마의 인의 세계관은 공맹의 사단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sup>10)</sup>

이제마는 그의 철학서인 『격치고』에서 “인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힘써 일하는 것이다.”<sup>11)</sup> 무엇에 대해 힘써 일하는가? 라는 물음에 『격치고』에서 인의 의미에 대하여 “사물에 대해 힘써 일한다.”<sup>12)</sup>는 것이고, 이는 “시작을 잘하는 것이다.”<sup>13)</sup>라는 의미로 언급한다. 이제마는 인을 사물에 대하여 즉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나 이외의 객체에 대하여 매사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임하는 마음의 자세로 보았다. 이제마는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인을 충의 개념으로 언급한 것과 맹자의 측은지심의 관점을 연계하여 설명하는 입장에 있다. 이제마는 “자신의 사상적 사유체계의 핵심적 내용인 사단지심과 비박탐나지심도 맹자에서 그대로 원용한 것이다.”<sup>14)</sup> 이는 이제마의 인에 관한 철학사상이 기본적으로 공맹의 유가사상에 연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마는 『격치고』에서 인의 의미에 지혜를 갖춘 인(仁)만이 진실에 부합한 인임을 말하고 있다. 공자는 『논어』 「이인」 편에서 “인한 사람은 인을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sup>15)</sup>라고 하였

- 
- 9) 임병학, 「東武 李濟馬의 思想的 思惟體系와 孟子」, 『退溪學과 儒敎文化』 제53집,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13, 236쪽.
- 10) 裴英淳, 「李濟馬의 四端論과 그 經世論의 再構成」, 『民族文化論叢』 제44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 275-297쪽. 參照. “李濟馬는 仁義禮智 四端의 概念을 再構成하는데, 人間의 內在的 心性論 次元을 넘어 天下의 大同的 價值 概念으로, 社會 實踐的 概念으로 擴張한다.”
- 11) 李濟馬, 『格致藁』, 「儒略」, 「觀仁篇」. “觀仁, 何也?, 觀效也.”
- 12) 『上同』. “效於物也.”
- 13) 『上同』. “善始也.”
- 14) 임병학, 「東武 李濟馬의 思想的 思惟體系와 孟子」, 『退溪學과 儒敎文化』 제53집,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2013, 237쪽.

다. 공자의 인은 ‘애인(愛人)’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곧 개인적 사랑이 아니라 전체 대중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공자의 인은 단순히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향하여 실현될 때 참다운 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제마의 인 개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제마는 인을 행하는 마음은 타인에게 항상 이로움을 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타인과 함께 이로움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여중리(與衆利)’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제마는 인을 행함에 있어서 ‘여중리(與衆利)’와 인의 소중한 가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여중(利與重)’<sup>16)</sup>의 어진마음이 곧 인임을 말하고 있다. 이제마는 인을 행함에 있어서 무조건적 실천하는 인보다 사람에게 참다운 의미가 있는 인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차원에서 인의 이로움에도 소중한 가치적 의미의 인이야말로 인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바탕이 됨을 말하고 있다. 이제마는 “어진 사람의 마음은 대중을 포용하는데 장점이 있다.”<sup>17)</sup>라고 『격치고』에서 말한다. 이제마의 인에 관한 사상은 ‘여중리’와 ‘이여중’의 이해를 통해서 인의 대중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자가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기고, 맹자는 인을 소중한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측은지심의 단서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마는 공자와 맹자의 인에 관한 사상을 계승하고 있지만 인을 내재적 차원에서 더 진보하여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을 타인에게 실현한다는 측면을 무엇보다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제마의 인은 전후 문맥으로 보아 그 기조에 지극히 성실한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이롭게 하고, 인간을 소중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진다.<sup>18)</sup>

15) 『論語』, 「里仁」. “仁者安仁. 知者利仁.”

16) 李濟馬, 『格致叢』, 「儒略」, 「天下篇」. “仁之所行, 利與重焉.” 참조.

17) 『上同』, 「獨行篇」. “仁者之心, 長於容衆.”

18) 최대우, 「李濟馬의 事心身物 四端과 仁義禮智」, 『범한철학』 제82집, 2016, 범한철

## (2) 의(義)

이제마의 의 사상은 공맹의 사상을 이어받아 의학적 사고에 입각한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사상을 말하고 있다. 이제마는 인의예지의 사덕 중 맹자의 의 사상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고, 자신의 철학적 논리에 접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맹자의 사상적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제마는 “의로움을 행위하는 데는 용기의 기묘함이 있어야 한다.”<sup>19)</sup>라고 설명하면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의 힘을 먼저 써서 그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마는 의의 전제 조건으로 용기를 언급하면서, 용기를 두루 갖춘 의가 진정한 의로서 가치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맹자와 제자인 공손추의 ‘호연지기’ 문답에서 잘 나타난다. 호연지기는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은 원기이다. 즉 의 및 도가 대공무사해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도덕적 용기가 근본이 되어야 호연지기가 가득차서 참다운 의가 된다는 것이다. 맹자가 호연지기를 설명하기 전 제자 공손추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부동심의 물음에 맹자는 “나는 나이 40부터 마음이 동요되는 일이 없다.”<sup>20)</sup>라 하였고,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방법의 물음에 “용기를 기르는 것이다.”<sup>21)</sup>라고 하였다. 즉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호연지기를 길러야 만 가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용기가 모여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이 맹자는 제자인 공손추에게 가득찬 용기야말로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임을 말하고, 이제마는 맹자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격

학회, 25-50쪽 參照. “李濟馬는 經驗의 觀點에서 四端을 事心身物 四端으로 再解釋하고, 이를 토대로 醫學理論을 展開했다. 그는 四端을 心身에 先天的으로 주어 진 知行 能力으로 理解하고 心身의 作用을 自身の 醫療 經驗을 통해 檢證함으로써 天人合一을 指向하는 超越的인 四端 解釋을 벗어나려고 했다.”

19) 『格致藁』, 「儒略」, 「天下篇」, “義之所行, 勇有奇焉.”

20) 『맹자』, 「公孫丑上」, “我四十不動心.”

21) 『맹자』, 「公孫丑上」, “養勇也”

치고』에서 의로움을 행위하는데는 뛰어난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용유기(勇有奇)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또한 용유기와 함께 의를 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과 함께 용기가 있으면 이는 곧 의로움이 된다고 하여 이를 여중용(與衆勇)이라 하였다. 이는 맹자와 같은 의미로 의의 근원에는 용기가 모여 의가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마는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경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sup>22)</sup>, “무엇에 대해 공경하는가? 몸에 대해 공경한다.”<sup>23)</sup>라고 의미를 두고 있다. 『맹자』 「이루상」의 의에 관한 설명에서 “의의 실질은 형을 공경하는 것이다.”<sup>24)</sup>라고 하였는데, 맹자의 의에 관한 설명을 이제마는 인간의 몸에 비유하여 인간의 몸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형을 공경하는 바와 같은 의미로 동일시하였다. 이제마는 맹자의 인간본성을 논한 사단설에 영향을 받고 이를 계승하였지만 사단의 본성을 마음의 차원을 내포하여 인체의 차원으로 확대하였다. 이제마는 의를 형이상학적 마음에서 형이하학적 인체로 확장하여 아우르는 관점에 있는 것이다. 즉 “사단지심을 폐비간신에 결부시킨 것이다.”<sup>25)</sup> 이는 유학의 인간윤리 사상을 이제마가 의학적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몸의 신성함에 대하여 공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의를 인체의 간에 대비하여 ‘몸을 공경하는 것’은 스스로를 수신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덕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마는 밤낮으로 조심하여 신중한 의로서 나태하고 자만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맹자가 의에 관하여 언급한 수오지심이 의의 단서라는 어구를 인용하여 의의 단서가 수오지심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제마의 의에 관한 생각이 맹자의 사상을 그대로 답

22) 李濟馬, 『格致藁』, 「儒略」, “觀義 何也?, 觀敬也.”

23) 李濟馬, 『格致藁』, 「儒略」, “敬於何也? 敬於身也.”

24) 『孟子』, 「離婁上」, “義之實, 從兄是也.”

25) 임병학, 「東武 李濟馬의 思想的 思惟體系와 孟子」, 『退溪學과 儒敎文化』 제53집. 2013, 236쪽.

습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인간윤리의 사회질서를 자신의 의학적 사상과 접목하여 인체의 질서로 확대 및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 (3) 예(禮)

이제마는 공맹으로 이어지는 유학사상의 영향을 받고 이를 자신의 철학적 사유에 접목하고,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선하다는 성선설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이제마가 유학을 공부하던 시대적 상황에 부응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제마의 『격치고』는 상당 부분 사서를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유학의 사서를 학문의 정통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논자는 이제마가 저술한 『격치고』의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면 인간의 성악적 이기심과 부합하는 면면을 상당히 엿볼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마가 저술한 『격치고』의 「독행편」을 보면, “비록 나쁜 사람도 인의예지의 한결같은 마음이 있으며, 비록 좋은 사람도 비박탐나의 더러운 욕심이 있다.”<sup>26)</sup>고 한 것은 사람의 본성에는 선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더럽고, 탐욕이 있으며, 비겁하고, 경박한 마음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이제마는 공맹의 유학 사상을 존중하며 사람의 본성은 선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또한 누구나 인간의 본성에 이기적 마음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마가 조선시대 전통학문인 유학의 시대적 상황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인간의 성악적 사상과 절묘하게 합치하여 인간의 본성과 성정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마는 특히 자신의 성정을 빗대어 “나는 금년 57세인데 오히려 거짓 행동 하는 것을 잊지 못하므로 자신을 더욱 경계하니 거짓은 역시 난제이다.”<sup>27)</sup>라고 하여

26) 李濟馬, 『格致藁』, 「獨行」. “雖惡人也, 有人義禮智之恒衷, 雖好人也, 有貪鄙儒薄之陋慾.”

27) 李濟馬, 『格致藁』, 「反誠箴」. “東武今年五十七齒, 而尙未忘行詐, 故彌彌自警, 詐亦難矣哉.”

인간의 본성이 결코 선한 것으로만 확신하지 않았다. 이제마는 『격치고』 전반에 걸쳐서 인간의 이기심과 나쁜 점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격치고』의 인간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저서 중 마음의 선행보다, 악행을 가장 많이 언급한 가장 대표적인 철학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제마는 『격치고』에서 “자신을 극복하여 예를 회복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 방법으로는 다음만 한 것이 없다. 예가 아닌 것은 보지 말고, 듣지 말며,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도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sup>28)</sup>라고 하여 공자 가르침의 어구를 인용하여 禮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공자의 사욕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 갈 수 있음과 같은 맥락의 의미로 볼 수 있다.<sup>29)</sup>

이제마는 『격치고』에서 “예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받드는 것이다.”<sup>30)</sup> 이는 마음에 대하여 돌이켜 구하여 받드는 것이다. 맹자는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시작이다.”<sup>31)</sup>라고 하여 맹자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맹자 사상과 같은 의미의 관점에서 ‘예’ 사상을 언급한다. 공자는 ‘극기복례’ 즉 사람마다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여 진정한 예를 회복할 것을 강조하였다. 인이 내면적인 도덕성이라 한다면, 예는 외면적인 사회규범이다. 결국 이제마는 공맹의 사상에 연원을 두고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에서 예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마는 『격치고』에서 예의

28) 李濟馬, 『格致藁』, 「反誠箴」. “此之謂克己復禮也, 其法莫如此等, 非禮之事, 勿視, 勿聽, 勿言, 勿動, 最爲上策.”

29) 裴英淳, 「李濟馬의 人間論-衆人의 類型論을 中心으로」, 『民族文化論叢』 제50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 323-357쪽. 參照. “李濟馬는 四端支心으로부터 일탈한 4가지 人間 유형으로서 鄙人·懦人·薄人·貪人을 말한다. 인간의 욕심에 같지 않기 때문에 이를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점에 대하여 『東醫壽世保元』에서는 그 概念만 등장하고 있지만 「獨行篇」에서는 精緻한 分析이 가해지고 있어서, 이는 古典儒學의 道德論이나 修行論 次元에서 檢討될 것이 아니라, 人文學的 人間論 次元에서 그리고 四象醫學의 醫學的 前提로서 再檢討될 必要가 있다.”

30) 『上同』, 「儒略」, 「觀仁篇」. “觀禮, 何也?, 觀恭也.”

31) 『孟子』, 「公孫丑上」. “辭讓之心, 禮之端也.”

의미를 타인에 대하여 헤아리는 마음을 갖춘 예를 진실에 합치하는 예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예를 살피고 깨우쳐야 사치하고 자만하지 않으며 겸손하고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됨을 말한다. “의로움이 없는 예의는 단지 번거롭고 허망한 예의이다.”<sup>32)</sup>라고 하여 예를 행하는 데는 예를 행하는 그 자체보다도 예를 행함에 의로운 명분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제마는 『격치고』에서 모역지언(謀亦至焉) 즉 “예를 행하는 데는 헤아림이 또한 지극해야 한다.”<sup>33)</sup>라고 주장하여, 타인에 대하여 헤아리는 지극한 마음을 바탕으로 예를 실천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마는 예를 행함에 모든 사람과 함께 헤아림을 줄 수 있는 의미에서 여중모(與衆謀)의 개념을 사용한다. 동시에 예를 행하는데 헤아림이 또한 지극해야 한다는 모역지언(謀亦至焉)의 참된 마음과 성실성을 갖춘 예가 진실된 예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마는 『격치고』에서 “예가 없으면 성격이 어그러져서 화를 내게 된다.”<sup>34)</sup>고 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동심을 통해 끊임없는 반성과 수양을 쌓음으로서 편벽함이 없는 중용의 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순자가 실천 덕목인 예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성정을 순화하도록 전승한 것과 같은 맥락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제마는 결국 예를 갖추어 심화(心火)의 다스림을 성취하면 인간이 오래 장수할 수 있다는 의학사상으로 펼치고 있다.<sup>35)</sup>

#### (4) 지(智)

이제마는 『격치고』에서 “앎을 행하는 데는 지가 먼저 앞서야 한다.”<sup>36)</sup>

32) 『格致藁』, 「儒略」, “無義之禮, 苟妄之禮也.”

33) 『上同』, 「天下篇」, “禮之所行, 謀亦至焉.”

34) 李濟馬, 『格致藁』, 「儒略」, 「事物篇」, “無禮, 則格戾而忿.”

35) 허훈, 「東武 李濟馬 修養論의 現代의 意味」, 『哲學』 제93집, 한국철학회, 2007, 21-45쪽. 參照. “既存 性理學에서는 修養의 方法이 서로 다를 수 없지만, 李濟馬는 ‘體質에 따라 修養의 內容과 方法이 달라진다’고 하여 각기 다른 性向의 인간들이 自身의 指向할 바를 提示한다.”

라 하였고, “지혜로우면서 알면 어리석음이 없다.”<sup>37)</sup>라고 하였다. 앎에 의해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리를 분별하는 지식을 갖추어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우선 갖추어져야 앎의 지식을 때와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마는 “권변의 마음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시작이다.”<sup>38)</sup>라고 하면서 “빠어나고 아름다운 지혜는 임기응변을 떠나지 않는다.”<sup>39)</sup>와 같이 앎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뜻과 기미에 따라 반응하고 대처하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일을 처리하는 변통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제마는 지혜를 펼침에 있어서 “지혜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빠짐없이 두루 보는 것이다.”<sup>40)</sup>, “일에 대하여 빠짐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다.”<sup>41)</sup>라고 하였다. 이제마는 『격치고』에서 “인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힘써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sup>42)</sup>라고 하여 인은 시작을 잘하는 것이고, 지는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제마는 “지혜를 행위하는 데는 앎이 또한 절실 해야 한다.”<sup>43)</sup>라고 하여 앎이 진실한 마음으로 바르고 충만해 있어야 처음과 끝맺음이 부동심으로 지혜롭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지우절(知又切)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지(智)는 모든 사람과 함께

36) 『格致藁』, 「天下篇」. “知之所行, 智首先焉.”  
 37) 『上同』, 「天下篇」. “智而知也, 知無愚也.”  
 38) 『上同』, 「天勢篇」. “權變之心, 是非之端也.”  
 39) 『上同』, 「天勢篇」. “英然美智, 未離權變.”  
 40) 『上同』, 「觀仁篇」. “觀智, 何也?, 觀周也.”  
 41) 『上同』, 「觀仁篇」. “周於事何也? 善終也.”  
 42) 『上同』, 「觀仁篇」. “觀仁, 何也? 觀效也.”  
 43) 『上同』, 「天下篇」. “智之所行, 知又切焉.”

앓을 깨우치고 함께 나아가야 곧 참다운 지혜가 된다는 의미로 이를 여중지(與衆知)라 하였다.<sup>44)</sup> 이제마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인 지를 선협적인 미덕의 도덕개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더 확장하여 지혜의 이로움을 대중과 함께 할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이제마는 지를 행하는데 있어서 어리석은 대중을 나 하나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여 대중들 모두 총명하여 진다면 사회윤리와 인간의 질서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 2) 『동의수세보원』의 醫 철학적 사단론

『동의수세보원』의 제1장 「성명론」과 제2장 「사단론」은 사상의학의 사단적 인간론을 정립하는데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성명론」은 “머리에는 식견이 있고, 어깨에는 위기가 있고, 허리에는 재간이 있고, 엉덩이에는 방략이 있다.”<sup>45)</sup>는 말처럼 이제마의 철학적 사유를 인체의 몸에 비유하여 광범하고,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단론」은 이를 사상인의 성정과 몸에 대입하여 좀 더 구체화 하여 의학적 사상 철학으로 연계시킨다. 이제마의 사단적 인간론은 맹자의 인의예지에 기초하고 있다. 맹자는 인간 본성의 선함을 인의예지에 있다고 말하고, 스스로의 수양을 통해서 사단을 확충하고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제마의 인간이해는 성리학에 근거를 두고 인간을 자연현상의 순리대로 천리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성은 그 자체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사육에 따라 본연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제마는 사상 철학적 사단론의 의미를 사람의 선한 본성(本性)인 인의예지에 근원을 두고, 맹자의 심성적 차원의 사단적 인간론으로 출발하여 그 의미를 인간의 유형으로 더 확장 하였다. 이것이 유가

44) 『上同』, 「天下篇」. “智而之也, 知無愚也” / 『上同』, 「天下篇」. “與衆知也, 知亦智也”  
참조

45)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臀有方略.”

의 심성적 형이상학의 사단론과 다른 독창성을 보이고 있는 이유이다.<sup>46)</sup>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 「사단론」에서 사단의 명확한 정의를 밝히지 않았지만, 「사단론」 첫 문단에 사람은 타고 나면서 부터 부여받은 장부의 이치에 따라 태양인·소양인·태음인·소음인의 4가지 유형의 인간으로 결정되고, 2번째 문단에서 사람이 인의예지를 버리면 이로 인하여 비박탐나인이 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을 몸과 마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구분한다. 이것은 이제마의 사단적 인간론이 장리의 편차에 따라 모습을 드러내는 사상인과 인의예지를 버려서 사육으로 나타나는 비박탐나인으로 구분하여 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제마는 사장인 폐비간신을 성인의 마음인 인의예지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고, 인의예지의 마음을 버려서 욕심에 굴복한 인간을 비박탐나인이라 닮고 있다. 이제마는 「사단론」에서 폐비간신과 인의예지의 상호 관계를 보충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제마는 인간의 사장인 폐비간신을 인의예지에 대입하고, 비유하여 확인 설명하고 있다. 사장인 폐비간신이 타고 나면서부터 편벽하여 인간의 성정이 치우쳐 있지만 폐비간신의 편벽함을 중화하여 확충하면 인간의 본성인 인의예지가 호연지기로 확충하여 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다. 특히 심욕과 이기심의 결정체인 비박탐나인을 통해서 본성으로 돌아가서 중용으로 가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의예지의 성을 확충하고 보존하면 본성을 회복하고 심신이 안정되어 병고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병으로 부터 오래 장수할 수 있는 길임을 밝히고 있다. 이제마는 인간의 선성인 사단을 회복하는 길이 심신의 안정을 찾고, 병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의(醫)철학사상의 근원은 유학적 사고에서 출발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적 세계관을 형성한다.

46) 최대우, 「李濟馬의 事心身物 四端과 仁義禮智」, 『범한철학』 제82집, 2016, 범한철학회, 25-50쪽, 參照. “李濟馬는 感情의 편차가 發病의 가장 큰 要因임을 發見하고 感情의 편차와 心身의 四端 機能과의 關係를 檢證하여 醫學理論의 基礎로 삼았다.”

## (1) 비박탐나인(鄙薄貪儒人)

이제마는 『격치고』에서 본성을 잃고 사욕에 치우친 인간의 나쁜 모습을 비·박·탐·나인이라 표현한다. 그리고 『동의수세보원』 「사단론」 2번째 문단에서 사욕에 가리워져 인의예지를 버리게 되면 비·박·탐·나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러운 인간을 비인, 경박한 인간을 박인, 탐욕스러운 인간을 탐인,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을 나인이라 하였다. 중인의 대표적인 비박탐나인은 대중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과 탐욕에 젖어 있다. 때문에 인간이 지니고 있던 본래의 성으로 돌아가 병든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건강한 삶과 장수를 유지하는 근본 이유이다.

이제마는 인의예지를 버린 사람을 비박탐나인 이라고 한다. 논자는 이들이 세속에서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평범한 인간 즉 중인을 의미하기 보다는 사단에서 완전히 일탈하여 욕심으로 가득찬 중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 한다.

강용혁은, “일반적인 사람은 인품 장리가 4가지로 달라서 그를 태소음 양인으로 분류하고, 이와 별도로 심이 저급한 혹은 심욕에 따라서 만 움직이는 인간 부류를 별도로 비박탐나인으로 구별한다.”<sup>47)</sup> 따라서 논자는 이제마가 서술한 중인이 모두가 비박탐나인 이라는 것이 아니고 중인 내에서 자기중심적 이기심에 치우친 자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비박탐나인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

맹자가 성인을 말할 때 요임금과 순임금을 거론한 것처럼 이제마 역시 『격치고』 「독행」편에서 요임금과 순임금을 본성대로 산 성인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그 이외 본성을 거역한 사람, 중인, 그리고 자신을 해친 사람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문단을 제외한 『격치고』와 『동의수세보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을 모두 성정의 차이에 따라 성인과 중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악인을 중인의

47) 강용혁, 『四象心學』, 대성출판사. 2010, 228쪽.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본성을 자포자기한 자들을 중인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sup>48)</sup> 이와 같이 논자는 본성을 거역한 사람, 자신을 해친 사람을 중인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중인은 성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중인도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정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비박탐나인은 중인에 내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한 부류이고, 중인의 가장 대표적 악인의 모습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마는 비박탐나인을 짐승에 대비하여 가장 추악한 자의 모습으로도 언급하고 있다.<sup>49)</sup> 비박탐나의 인간을 인명수심의 무리로 서술한 것은 사람이 인의예지의 사단지심을 잃게 되면 짐승과 다름없음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인간의 악한 점을 적나라하게 열거하여 서술한 것은 『격치고』 「독행편」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즉 비박탐나인은 평생 악한 인간으로 짐승처럼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 이제마는 중용의 이치로 비박탐나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언급한다.<sup>50)</sup> 인간의 진실과 바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뒤에 숨어있는 위선과 탐욕의 양면성을 알고 있어야 중용의 이치를 알게 되어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림 없이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천리를 알고 행동하게 된다.<sup>51)</sup> 이는 마치 낮이 있는 것을 보아야 밤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약동하는 봄을 느껴야, 결실을 맺는 가을을 알 수 있으며, 눈물이 있어야 기쁨의 환희를 아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음양의 기운이 천지자연을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질서를 유지

48) 裴英淳, 「李濟馬의 人間論-衆人의 類型論을 中心으로」, 『民族文化論叢』 제50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 337쪽.

49) 李濟馬, 『格致藁』, 「獨行篇」. “鄙者之心可謂貪狼之心也, 薄者之心可謂狡兔之心也, 貪者之心可謂封豕之心也, 懦者之心可謂妖狐之心也.” 참조.

50) 李濟馬, 『格致藁』, 「獨行篇」. “知人誠僞, 則不惑, 不惑, 則正心; 正心, 則不動心, 不動心, 則遷世中庸, 而無悶.” 참조.

51) 裴英淳, 「李濟馬의 人間論-衆人의 유형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50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 351-352쪽, 참조.

하고 있는 원리와 같다. 그러므로 자기의 본성을 완성하는 지극히 참다운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타인의 위선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 (2) 사상인(四象人)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 「의원론」에서 “나는 의약 경험이 있는지 5,000~6,000년 후에 태어나서 옛 사람들이 저술한 책에서 우연히 사상인의 장부(臟腑)와 성리(性理)를 깨닫고 하나의 책을 저작하여 이름을 『수세보원』이라 하였다.”<sup>52)</sup> 이제마는 사람의 장부에 따른 성리가 인간을 4가지 집단 유형의 심성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깊은 사유 속에서 인간을 태양인·소양인·태음인·소음인과 같이 4가지 유형의 모습으로 구분하였다. 그렇지만 사상인은 타고난 천품이 성정과 사장(四藏)의 과부족으로 심신이 편벽하여 저서 병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편벽에서 벗어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의예지의 본성을 회복하여 중화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53)</sup>

### ① 장론(臟論)

이제마는 남다른 깊은 통찰력으로 몸에 내재하고 있는 장부의 편차가 사람의 성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타고난 천품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제마는 우연히 깨닫게 된 장부의 이치와 이에 따른 사

5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醫源論」.“余生於醫藥經驗五六天載後, 因前人之述, 偶得四象人臟腑性理著得一書, 名曰壽世保元.”

53) 임병학·장진영, 「李濟馬의 사상철학과 四象인의 인성교육」, 『유학연구』 제39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7, 373-397쪽. 參照 “동무 이제마는 인간의 타고난 성정을 사상인(太陽人·太陰人·少陽人·少陰人)으로 파악하고, 이를 天·人·性·命의 구조로 사상의학의 전체적인 틀에서 제시한다. 천에 해당하는 ‘好善之心’, 인에 해당하는 ‘惡惡之心’은 체가 되고, 성에 해당하는 ‘邪心’, 명에 해당하는 ‘怠心’은 용이 되어 체용의 관계로 논한다. 특히 호선지심이 왜곡된 마음으로 사심을, 오악지심이 왜곡된 마음으로 태심을 파악함으로써 사상적구조로 마음을 이해하였다.”

상인의 성정을 자신의 의학서인 『동의수세보원』의 「사단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확충론」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sup>54)</sup>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 「사단론」의 첫 문단에 사람이 장리로 인하여 타고나는 인간의 천품을 4가지 유형의 태양인·태음인·소양인·소음인으로 규정한다. 논자는 이제마가 『동의수세보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실질적 의미의 사단이라는 것은 유학적 사단의 본성인 인의예지를 천품으로 내재하고 있지만, 타고나면서부터 장(藏)의 기능이 대소로 변질되어 성정이 편벽하여 드러난 인간의 4가지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sup>55)</sup>

이제마는 「사단론」에서 성인이나 중인의 장을 사단이라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인 사단이 장리와 상호 작용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장리의 사단이 외부적인 사(事)에 접촉하여 사욕이 생겨날 때 정으로 나타나서 인간의 천품이 만 가지로 달라지게 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천품은 기본적으로 사상인 이라는 유형의 틀 속에서 만 가지로 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장리에 따라 천품이 인간 성정의 결과로 드러나는 4가지 유형인 태양인·소양인·태음인·소음인을 사단의 본성을 바탕으로 드러난 인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상인은 본래 타고나면서부터 맹자가 전파한 선한 본성인 사단을 지니고 있지만, “성인의 마음은 욕심이 없고 중인의 마음은 욕심이 있으니 성인의 욕심이 없는 마음 하나가 중인의 욕심 있는 마음 만 가운데 처하여 있으니 중인은 성인이 근심하는 바이다.”<sup>56)</sup> 본래 선한 본성의 장점인 사단이 사욕으로 인하여 마음의 불

54)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少陰人.” 참조.

55) 『上同』. “聖人之臟, 四端也, 衆人之臟, 亦四端也, 以聖人一四端之臟, 處於衆人萬四端之中, 聖人者, 衆人之所樂也.” 참조.

56) 『上同』. “聖人之心, 無慾也, 衆人之心, 有慾也, 以聖人一無慾之心, 處於衆人萬有慾之中, 衆人者, 聖人之所憂也.”

균형 상태로 치우치게 된다. 동시에 이것은 성의 천부적 장점과 장리와 의 상호작용이 정으로 표출되고, 외부와 접촉하면서 드러나는 결점이 혼합되어 사유형의 체질인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역』에서의 태(太)는 완성의 의미이고 소(少)는 미완성의 의미이다. 따라서 이제마는 『주역』의 의미를 사용하여 태양인은 완전한 양인이고, 소양인은 완전하지 못한 양인을 의미한다. 또한 태음인은 완전한 음인이고 소음인은 완전하지 못한 음인으로 보아 4가지 체질의 유형을 구분하여 사상의학의 철학적 이론을 체계화 한 것으로 보인다.<sup>57)</sup>

이제마는 “오장의 심은 중양의 태극이요 오장의 폐·비·간·신은 사유(四維)의 사상(四象)이니 중양의 태극은 성인의 태극이 중인의 태극보다 높이 나온 것이고, 사유의 사상은 성인의 사상이 중인의 사상에 널리 통한 것이다.”<sup>58)</sup>라고 하였다. 심은 한의학에서 군주기관으로서 사장(四臟)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제마는 기존 한의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심장은 사장을 주관하는 위치가 아니라 심혈을 통해서 상호 통하고, 교류해서 마음의 역할로서 원만히 조화된 기운을 말한다.<sup>59)</sup> 사유의 사상은 사장(四臟)의 기운이 성인의 사장이거나 중인

- 57) 임병학,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의 四象心에 對한 考察-四象哲學의 마음 研究(1), 『藏書閣』 제33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236-257쪽. 參照. “李濟馬는 『주역』 「계사상편」 제11장의 ‘易有太極’절에 근거하여, 自身의 四象哲學을 展開하면서 人間의 마음 作用도 四象의 構造로 논한다. 그는 人間 存在에 있어서 根源의 마음을 一心(太極)이라 하였고, 이 一心에서 生하는 兩儀(陰陽)를 身(道心)과 心(人心)이라 하였으며, 이 身(道心)의 陰陽작용은 好善之心과 惡惡之心으로 論하고, 또 心(人心)의 陰陽作用은 誣世之心(邪心)과 罔民之心(怠心)으로 論하여, 心의 四象을 完成한다.”
- 58)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 中央之太極, 聖人之太極, 高出於衆人之太極也, 四維之四象, 聖人之四象, 旁通於衆人之四象也.”
- 59) 『上同』. “然則天下衆人之臟理, 亦皆聖人之臟理, 而材能, 亦皆聖人之才能也, 以肺脾肝腎, 聖人之材能, 而自言曰, 我無才能云者, 豈材能之罪哉, 心之罪也.” 참조.

의 사장과 다를 바 없이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은 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각 장부에 미치는 정도와 깊이가 각기 다르다. 태극은 음양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음양이 분화되기 전의 상태이므로 그 기운이 중심에 치우쳐 있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성인의 마음은 중인의 마음보다 편벽함이 없이 균형을 유지하고 사장과 조화를 이루면서 소통하는 상태의 마음이다. 따라서 성인은 마음의 균형과 조화가 중인보다 원만하여 중정(中正)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 크다. 반면에 중인의 마음은 성인보다 편협하여 四臟이 한 곳으로 치우치기 쉬우므로 균형과 조화가 틀어지기가 쉽다. 이로 인하여 중인은 마음이 편벽하여져서 희노애락의 감정 조절에 장애가 발생하고, 결국 성정이 심화(心火)가 되어 병이 발생하게 된다.<sup>60)</sup>

## ② 성정론(性情論)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의 「사단론」에서 장국의 대소에 따라서 사상인을 논하고 있다. 이어서 성정에 따라서 장국의 형성을 논하고 있다. 사상철학에서는 희노애락의 심성이 발로하게 되면 발동하기 전의 모습을 ‘성’이라 하고, 희노애락이 이미 발동하여 감정으로 나타나게 될 때 ‘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상은 기존의 유학적 성정론과 비교해 보아도 크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성리학적 사상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리학이 성의 본성과 정의 외형적 감정의 모습만을 논하고 있지만, 이제마의 사상철학은 성의 본성과 마음작용의 변화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의 미발지성과 정의 기발지성을 인체 내부의 장부와 인

60) 허훈, 「東武 李濟馬 修養論의 現代的 意味」, 『哲學』 제93집, 한국철학회, 2007, 21-45쪽. 參照. “李濟馬 修養論의 目的 및 方法은 ‘心臟 中樞說을 基本으로 한 局在論’에 바탕한 것으로, ‘腦가 곧 마음’이라는 腦主說을 따르는 現代科學에서는 懷疑的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心主說은 아직까지도 日常的·臨床的인 意味를 지닌다. 東武의 心主說은 그의 ‘臟腑性理’라는 表現에 잘 나타난다. 結局 ‘臟腑性理’를 통해 그의 修養論의 成立 構造를 理解할 수 있다.”

체 외부의 몸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결하여 의학적 철학사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성리학적 성정이해의 관점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태양인은 애성을 타고 났지만 애성이 극해지면서 노정으로 표출되고, 소양인은 노성을 타고 났지만 노성이 지나치게 되면 애정으로 표출된다. 태음인은 희성을 타고 났지만 희성이 극해지면 낙정으로 표현되고, 소음인은 낙성을 타고 났지만 낙성이 지나치면 회정으로 표현되어 나타난다.<sup>61)</sup> 즉 몸이 외부의 사물과 부딪치면서 발생하는 감정의 실제적 산물인 것이다.<sup>62)</sup> 결국 장부의 대소 기능의 차이가 성의 발동과 정 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인간의 4가지 모습인 태양인·소양인·태음인·소음인으로 발현되어 진다.

이제마는 주관적 및 직관적 세계관의 다양한 서술로 사상인의 성정을 대체로 추상적 방법을 동원하여 논의한다. 따라서 이제마의 저서인『동의수세보원』에 나타나는 회노애락의 성과 정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회노애락의 개념은 보통 알고 있는 정으로 나타나는 슬픔·성냄·기쁨·즐거움의 의미로 보아서는 안된다. 이제마는 회노애락을 성과 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3)</sup> 때문에 회노애락의 성과 정을 구분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제마는 「사단론」에서 사상인의 성정과 폐비간신의 상호 미치는 연관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회노애락의 성정으로 인하여 폐비간신의 장이 영향을 받고, 그 기능에 대소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태양인은 애성을 타고 났고 이로 인해 나타나기 쉬운 회노애락의 감정 중에서 분노를 잘 나타낸다는 것이다. 즉 노정을 가장 성급히 표현한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태양인의 노정 표현을 쉽게 알 수 있고, 느낄

61) 최대우, 「李濟馬 四象說의 哲學的 根據」, 『범한철학』 제62집, 범한철학회, 2011, 24-26쪽, 참조

62) 『上同』, 25-26쪽, 참조.

63) 강용혁, 『四象心學』, 대성의학사, 2010, 253-255쪽, 참조.

수 있다. 여기서 애성은 슬픔으로 나타나는 정 이전의 상태이다.<sup>64)</sup> 노정은 감정으로 나타나는 분노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태양인은 우월기능이 심신을 다하여 애쓰는 마음으로 인하여 매사에 지나치고 과도하게 일을 추진하게 된다. 그래서 일이 뜻대로 성사되지 못하면 다급한 마음에 화를 내는 마음이 급하게 촉발해진다. 호선기능인 애성은 폐에 영향을 미쳐서 폐의 기능은 좋아지고, 시각이 좋아지면 촉감이 약해지듯이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분노의 감정은 간에 영향을 미쳐서 간의 기운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여 그 기능이 약하여 진다는 것이다. 즉 폐대간소(肺大肝小)해진다. 그러므로 태양인은 약한 간 기능으로 인하여 병이 들고, 이를 극복하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소양인은 노성을 타고 났고, 표현하기 쉬운 감정은 슬픔을 잘 나타낸다. 소양인의 노성은 노함으로 나타나는 정 이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분노를 나타내는 노함이 아니다. 애정은 감정으로 표시되는 슬픔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소양인의 노성은 몸은 서두르지 못하고 마음만 과해지고 서두르며 주변 분위기를 살피니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모진 상황에 놓이게 되면 슬퍼하게 되니 그래서 애정을 연출하기 쉽다는 것이다. 소양인의 슬픈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슬픈 공감대를 형성하여 측은함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소양인의 노성이 넓고 커지면 그 기운이 비에 몰려서 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오히려 비의 활동을 자극하게 하여 그 기능이 더 좋아지게 된다. 반면에 소양인의 노성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감정이 급하게 오면 기운이 신에 영향을 미쳐서 신의 기운이 상하게 되어 신의 기능이 나빠진다. 즉 비대신소이다.

태음인은 희성을 타고났고, 감정은 낙정이다. 태음인의 희성은 기쁨의 감정이 표현되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태음인의 희성은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낙정은 즐거움을 나타내는 감정이다. 태음인

64) 강용혁, 『四象心學』, 대성의학사. 2010, 253-254쪽. 참조

은 희성을 타고난 이유로 모진 상황에서는 결정력과 행동이 느려서 신속히 결단해야 하는 일은 미루고 자신이 익숙하게 해 온 일만 열심히 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좋아서 즐겨하는 것처럼 보이니 태음인은 낙천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다.

태음인의 넓고 널리 퍼지는 성은 즐거움의 감정을 급하게 촉발시키고, 희성의 기운이 간에 몰려서 간의 기능이 더욱 활발하여 진다. 간의 기능이 지나치게 작용하면 낙천적으로 즐거워하는 감정이 지나치게 빨리 일어나게 된다. 즐거워하는 정이 지나치게 되면 그 기운이 폐에 역기능으로 작용하므로 폐의 기능이 나빠지게 된다. 즉 간대폐소이다.

소음인은 낙성을 타고 났고,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은 회정이다. 소음인의 낙성은 감정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소음인의 낙성은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sup>65)</sup> 회정은 기쁨을 나타내는 감정이다.<sup>66)</sup> 이는 소음인이 모진 꼴을 당하면 쉽게 웃음을 남발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척 한다는 것이다. 소음인이 낙성이 깊고 굳어지면 기뻐하는 감정을 급하게 촉발시키고, 낙성의 기운이 신(腎)에 몰려서 신의 기능이 더욱 활발하여 그 기능을 더 좋아지게 한다. 한편 신에 넘치는 기운은 기뻐하는 감정으로 변질되어 그 감정이 매우 촉발하여지고, 기뻐하는 정이 지나치게 되면 그 기운이 비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는 갈수록 상하게 되어 비의 기능이 나빠지게 된다. 즉 신대비소이다.<sup>67)</sup>

결국 태양인은 애성이 지나치게 되면 노하는 감정으로 나타나고, 소양인은 노성이 지나치게 되면, 슬픈 감정으로 작용하고, 태음인은 희성이 지나치게 되면 즐거워하는 감정으로 표현되고, 소음인은 낙성이 지나치게 되면 기뻐하는 감정으로 표현되어 이것이 상호 과부족 현상이 되어 장부

65) 강용혁, 『四象心學』, 대성의학사, 2010, 255쪽. 참조.

66) 『上同』, 257쪽. 참조.

67) 『上同』, 252-261쪽. 참조.

의 편급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것이 사상인의 태생적인 약점이 되어 몸에 병을 일으키게 된다. 이제마는 애오욕과 희노애락의 성정으로 인하여 병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이제마는 맹자의 사단지심을 신체의 사장인 폐비간신에 대입시켜서 성정과 폐비간신과의 연관성을 의학적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인의예지의 수양을 통해서 편급된 성정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용의 마음을 얻으면 폐비간신이 모두 건강하고 평온하게 되고, 자연이 사람의 마음에 아름다운 덕을 지니게 되어 병의 근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의(醫)철학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sup>68)</sup>

### 3. 결론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고, 사상체질론을 창안한 의학자로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의학자 이전에 『격치고』를 저술한 철학자이다. 이제마 의학사상의 기본바탕이 되는 『격치고』는 인간의 善性和 그 이면을 예리한 관찰력으로 정치하게 논하고, 유학사상에 입각하여 인간의 이율배반적 양태를 수기치인과 성찰을 통하여 참된 인간의 正道를 모색하고자 한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이제마의 철학사상은 인의예지의 사색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제마는 맹자의 사덕인 인의예지를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성정의 상하승강과 장리의 대소에 따른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을 유일무이의 독창적 논리로 설정하였다.

이제마는 공맹의 이상적이고 관념적 윤리 사상의 인의예지를 자신의 독창적 방법으로 해석하여 의학이라는 실용적 방법을 통하여 표현하였고, 인간을 개개인의 각기 다른 형태이거나 또는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보지

---

68) 『上同』, 2010, 259-261쪽, 참조.

않고 4가지 유형의 집단으로 나누어 보았다는 점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 이제마의 철학사상으로 탄생한 사상의학은 기존한의학의 철학적 관점인 천인합일과 오행설의 도교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유교의 인본주의적 인의예지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인간을 크게 두 부류인 비박탐나인과 사상인으로 구분하면서 인간의 성정을 논하고 있다. 비박탐나인은 그의 철학서인 『격치고』 「독행편」에서 저급한 인간의 행태로 언급하였고, 사상인은 의학서인 『동의수세보원』 「사단론」편에서 성정과 장리의 편차에 따른 인간의 모습으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제마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유학적 사단설의 기류에 거슬리지 않고,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처절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인의예지의 본성 이면에 드러나는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양면적인 모습을 깊이 관찰하고 고민한 결과이다.<sup>69)</sup> 이제마는 그의 저서인 『격치고』의 독행편, 에서 비박탐나인을 탐욕과 악행의 전형적 모습으로 묘사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후 「반성잡」편에서 이기심과 욕심으로 부터 수기치인하고, 성찰하여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던 사단지심의 발로인 인의예지의 본성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악을 알아야 선을 알 수 있듯이 비박탐나인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독창적 직관에 입각하여 인간의 성정과 장리의 편차에 따른 사상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마는 인간 중심으로 서술한 『동의수세보원』 「사단론」 첫 장에서 ‘사람이 장을 타고 나는 이치에 따라서 태양인·소양인·태음인·소음인’이라 하고, ‘인의예지를 버리고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을 비인·박인·탐인·나인’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성인의 장은 사단이고, 중인의 장도 사단’이라 설명하고 있다. 결국 이제마는 인간의 사단을 장부의 편차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의 사상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인의예지의 바탕에서 인간 모습의 사단으로 구체화 하였다. 또한 인의예지와

69) 裴英淳, 「李濟馬의 人間論-衆人의 類型論을 中心으로」, 『民族文化論叢』 제50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 351-352쪽. 참조.

연계하여 설명한 비박탐나인은 사단지심을 버린 인간의 나쁜 모습으로 구체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제마는 사변적 논의의 사단을 사상의학을 통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확장하여 실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제마가 인간본성인 인의예지의 사단지심을 인간의 몸에 적용함으로서 형이상학적 사유를 형이하학적 인간의 형태로 구체화 한 것은 醫哲學的 四端의 사유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論語』, 『孟子』, 『中庸』, 『大學』, 『禮記』 『荀子』.
- 李濟馬, 『格致藁』, 德興印刷所, 昭和15年.
- 李濟馬著·박대식譯註, 『格致藁』, 청계출판사, 2002.
- 李濟馬著·동의학연구소譯, 『東醫壽世保元』, 여강출판사, 2002.
- 강용혁, 『四象心學』, 대성출판사, 2010.
- 김진춘, 「孔子의 禮 思想 研究」, 성대 석사학위논문, 2003.
- 裴英淳, 「李濟馬의 人間論-衆人의 類型論을 中心으로」, 『민족문화논총』 제50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 323-357쪽.
- 다산학연구원편, 『(이을호 전서)四象醫學과 生命醫學論』, 예문서원, 2002.
- 裴英淳, 「李濟馬의 四端論과 그 經世論的 再構成」, 『민족문화논총』 제44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 275-297쪽.
- 배성인, 「孔子의 仁思想에 觀한 研究」, 『사회과학논총』 제12집, 명지대 사회과학연구소, 1996, 251-278쪽.
- 沈佑燮, 「孔子의 人間價値觀에 觀한 研究: 仁思想을 中心으로」, 『교육연구』 제39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4, 1-26쪽.
- 송정모,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的 背景에 對한 考察」,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유성선, 「韓國儒敎における 宗教性認識の問題」, 『儒學研究』, 忠南大 儒學研究所, 2012, 233-249쪽.
- 유성선, 「退溪學派의 栗谷 性理說 批判과 展望」, 『退溪學論集』, 退溪學研究院, 2010, 103-115쪽.
- 유성선·황정희, 「孔子의 ‘爲仁由己’를 통한 道德的 不安感 研究-철학치료의 불안 해소를 중심으로」, 『공자학』, 공자학회, 2016, 5-39쪽.
- 이병채, 「東武李濟馬 四象醫學의 哲學的 意義」, 『韓國宗教』 제33집,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2009, 157-178쪽.

- 이운정, 「孔孟의 哲學思想 및 教育思想 比較研究」,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8.
- 임병학, 「東武 李濟馬의 思想的 思惟體系와 孟子」, 『退溪學과 儒敎文化』 제 53집,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13, 236-237쪽.
- 임병학,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의 四象心에 對한 考察-四象哲學의 마음 연구(1)」, 『藏書閣』 제33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236-257쪽.
- 임병학·장진영, 「李濟馬의 四象哲學과 四象人의 人性敎育」, 『儒學研究』 제 39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7, 373-397쪽.
- 최대우, 「李濟馬 四象說의 哲學的 根據」, 『범한철학』 제62집, 범한철학회, 2011, 1-30쪽.
- 최대우, 「李濟馬의 事心身物 四端과 仁義禮智」, 『범한철학』 제82집, 2016, 범한철학회, 25-50쪽.
- 최문형, 「儒學의 仁思想의 社會生物學的 解釋」, 『儒敎文化研究』 제20집, 성대 유교문화연구소, 2012, 295-319쪽.
- 황인선, 「李濟馬의 知行論 研究-『格致藁』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63집, 새한철학회, 2011, 163-184쪽.
- 허훈, 「東武 李濟馬 修養論의 現代的 意味」, 『哲學』 제93집, 한국철학회, 2007, 21-45쪽.

## **A Study on Satanology based on Philosophy of Medicine by Lee, Je-Ma**

Kim, Du Young (Kangwon KSI)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at Satanology of Lee, Je-Ma is based on Confucian satanology and it is an original theory being embodied as four human constitutional types.

Most of preceding studies on Satanology of Lee, Je-Ma were focused on Sashim-Shinmool being mentioned as Sasang by Lee, Je-Ma but in this study, Sasangin based on Confucian benevolence was focused.

In ‘Dongueui Susebowon’ satanology, Lee, Je-Ma explained Sadan in four human constitutional forms including Taeyang-In, Taeum-In, Soyang-In, Soeun-In. He clarified his theory by explaining Bibak Tamnain and Sasand-In based on Confucian benevolence. Therefore, the author of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its developments being progressed so far and to explore a mutual correlation between Confucian benevolence and Sasangin that is a human doctrine of Lee, Je-Ma.

In order to prove this attempt, Confucian classic literatures, ‘Gyeokchigo’ of Lee, Je-Ma and ‘Dongueisuse Bowon’, a medical book were reviewed. In ‘Gyeokchigo’ Lee discussed Bibak Tamnain based on Confucian benevolence as an academic ground. In addition, in ‘Dongueisuse Bowon’, he materialized Sasangin under the correlation between human four main organs and benevolence. He presented his original human doctrine by dividing Sadan that is Confucian theoretical reasoning into human four constitutional types through a practical

method of medical science.

Lee analyzed human temperament by each type by merging medical science and psychology with human body based on human-oriented ethics and advanced Confucianism. Under this background, he could establish his own very unique academic system as his observation and insight into universal principle and objects phenomenon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people.

Key words: Lee, Je-Ma, Gyeok-chi-go, Satanology, Philosophy of Medicine, benevolence, Bibak-Tamnain, Human four constitutional types

김두영 E-mail: pax90@hanmail.net

투 고 일	2018년 10월 26일
심 사 일	2018년 10월 27일
계재확정	2018년 11월 20일